PHOTO ESSAY

사진산책

중간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중간. 일상과 쉼의 중간 같은 사진.
특정 주제나 내용에 치우치지 않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사진

콜롬비아 산동네 광장

이호준 Lee, Ho-Joon | 성공회대 강사·사진가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에서 2회 수상하고, 일곱 차례의 개인전과 여덟 번의 단체전을 개최했다. 포토에세이 <직조>와 <걸으면 보이는>을 출간했으며, 여러 월간지와 주간신문에 사진이야기를 연재했다. 다수의 인쇄, 방송 매체에 소개되었고 지자체, 공공기관, 사진모임 초청으로 사진 강연을 한다. 대학에서 사진학을 강의하고 초등학교 미디어리터러시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사진 여행으로 지방 소도시를 찾을 때마다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것은 세대 간 인구의 불균형과 사람의 부재다. 아이 웃음소리가 사라지고 젊은이가 떠난 자리에는 일자리도 신기루처럼 증발하며 인구 불균형은 지역 경제를 흔드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예전에는 이웃끼리 안부를 묻고 사정을 헤아리는, 공동체라는 단단한 그물망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물망 곳곳에 끊어진 자리가 선명하다. 품앗이 문화가 약화되며 생기를 잃은 마을에서 주민들은 각자 살아가는 법을 배우지만 그 모습은 종종 고립을 닮아 있다.

최근 방문한 콜롬비아의 작은 산동네 풍경은 우리의 상황과 사뭇 달랐다. 국민소득 같은 경제 지표는 우리보다 훨씬 낮지만 그곳에는 숫자로 재단할 수 없는 공동체의 생명력이 흐르고 있었다. 무엇보다 인상적인 것은 세대의 균형이었다. 아이들은 뛰놀고 청장년은 일하며 노인은 그 풍경을 편안하게 바라보는 장면을 쉽게 마주할 수 있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장면은 마을 어른의 마지막 길을 주민 모두가 함께 배웅하며 음식을 나누던 장례식 풍경이었다. 죽음을 혼자 감당하게 두지 않는 문화는 어떤 경제 수치로도 잴 수 없는 삶의 안전망이다. 그 장면은 공동체를 지탱하는 것이 숫자보다 관계임을 다시 확인하게 했다. 짧은 기간이지만 이런 풍경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거대한 개발보다 서로를 살피는 관계의 복원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고락을 함께하는 마당과 작은 도움을 주고받는 통로를 되살리는 일. 그것이야말로 쇠락해가는 지방 소도시에 다시 활기를 불어넣는 가장 절실한 처방일 것이다.

콜롬비아 산동네 풍경